

나주시, 코로나 틈타 수의계약 2000만원으로 확대

지역경제 위기 극복 명분 내달부터 공사·용역대금 한도 다시 상향조정 특혜시비·과다경쟁 문제점 개선한다더니...“건설업체 노골적 두둔” 지적

나주시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각종 특혜시비 논란이 일었던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혜 시비,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한 지역갈등 조장 등의 문제를 없애고 행정업무를 쇠신한다며 개선안을 내놓은지 11개월만에 회귀한 것이다. 명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지역경제 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어 5월1일부터 공사·용역대

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 수의계약 방식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입찰 방식의 절차상 복잡성, 지역 연고 업체 참여기회 축소, 예산 신속집행 부진 등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비상경제 체제에서 부처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이에 호응해 제도 개

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다.

11개월 전 나주시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명분이었

다.

당시 나주시는 "수의계약 하향 조정으로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시민들에 대한 행정업무 신뢰성 회복은 물론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도 환영했다.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는 나주시가 건설업체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시 한 시민은 "지자체 행정업무 중 각종 비리와 얽히는 것이 수의계약"이라며 "나주시가 노골적으로 건설업체를 두둔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및 용역을 공개입찰로 바꾸면서 행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생색을 내더니 1년도 되지 않아 예전 관행으로 회귀했다"면서 "오라가라 행정과 즉흥 행정의 표본으로 삼을만 하다"고 비난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1958년에 촬영된 옛 장성역.

샘·역·문화재 등 장성 옛 지명유래지 책으로 발간한다

장성군 장성읍에는 '영천(鈴泉)리'가 있다. 샘 바닥에서 방울방울 솟아오르는 물방울을 보고 누군가 '방울샘' (전남도 기념물 제186호)이라는 이름 붙인 것을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다. 방울샘이 있는 오동촌(梧桐村)은 마을이 형성되던 500여년 전 오동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에서 장성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못재'다. 한 총각의 효성이 맹수를 감복시켰다는 '모고재 전설'에서 유래했다. 총각의 이름이 '목호(牧虎)여서 고개명이 '목호재'가 됐고, 세월이 흘러 '모고재'로 변했다가 지금은 '못재'가 됐다.

장성군은 옛 지명의 유래를 기록한 '장성군 지명유래지'의 발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옛길, 산, 강, 하천, 문화재, 토속의식, 역, 인물 등을 마을 순으로 수록할 예정이다. 언어와 풍속, 의식, 종교 등 장성의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집필 책임은 이종일 장성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발간위원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가량 기초자료를 모으고 분석해 내년 2월 완성본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명유래지는 장성의 마을별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를 총망라할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토사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



장성을 영천리 방울샘, 영천(鈴泉)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곳이다. <장성군 제공>

함평군수 관사 29년 만에 '군민의 품으로'

이상의 당선자 공약 ... 폐지 결정 군민 위한 시설로 탈바꿈

함평군수 관사가 29년 만에 군민 품으로 돌아간다.

함평군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의 군수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군수 관사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평군은 5월 한 달간 공모방식으로 군민 의견 등을 수렴해 6월 말까지 사용용도와 사용자(단체·조직)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취약계층 자생조직이나 지역민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가급적 무상(공과금 별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함평군수 관사는 관선 단체장 시절 정부에서 파견한 단체장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91년 건립했다.

군청 옆 728㎡ 부지에 연면적 228㎡ 2층 규모로 지어졌다.

그동안 군수의 업무 연장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29년 간 유지해 왔지만, 권위주의의 논란과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찍힌 군수 관사는 관치시대의 유물로 현재 몇몇 지자체에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관사가 갖는 상징성과 예산 등을 고려해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군민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함평군수 관사가 29년만에 군민 품으로 돌아간다. <함평군 제공>



나주시가 남평을 강변도시에 조성한 녹색 쌈지 숲.

남평 강변도시 자투리땅 '녹색 쌈지 숲' 조성 근린공원 부지 3000㎡ 1억9800만원 투입 수목·조화류 식재

나주시는 남평을 강변도시 내 숨은 자투리땅에 '녹색 쌈지 숲'을 조성, 시민들의 일상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녹색 쌈지 숲은 도심 생활권 국·공유지에 다양한 수목과 조화류를 식재해 녹색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흡수에 따른 공기 정화, 여름철 폭염 완화 등 물리적 효과와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규모는 작지만 알찬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나주시는 남평을 강변도시 아파트 단지 사이 근린공원 부지 3000㎡에 사업비 1억9800만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녹색 쌈지 숲을 조성했다.

쌈지 숲 조성에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소나무 등 수목 15종 136그루, 남

천 등 관목 11종 2340그루, 가우라 등 조화류 6종 1800본을 심었다.

특히 산책로 주변에는 계절별 꽃나무(왕벚나무, 목련, 자엽안개 등)와 상록수를 심어 시민들이 사계절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잔디광장에 설치됐던 예코블럭 대신 투수성이 좋은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그늘막·조경석 등을 설치해 탁 트인 개방감과 시각적 효과를 더했으며 진입로에는 퍼즐러, 등 의자 등 편안한 쉼터 시설을 마련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남평 강변도시 아파트 입주를 통해 도시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명품 강변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생활권 공원을 조성했다"며 "녹색 쌈지 숲은 주민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힐링 공간이자 기후·환경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 SGI서울보증, AXA AXA, AIG, NH농협손해보험